

박영선 ‘편의점 알바’ vs 오세훈 ‘지하철 방역’

4·7 보선 선거운동 첫날
여야 지도부, 서울·부산 총출동
서울시장, 투표율이 당락 좌우
열성 지지층 찾아 결집 호소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왼쪽)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각각 신도림역과 남대문 시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리보는 대선’으로 평가받는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여야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의 전략지로 총출동해 본격적인 유세전을 펼쳤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여야가 열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이날 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전 승리를 다짐했다. 박 후보는 오후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자리를 옮겨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힐링캠프’ 유세를 했다. 앞서 박 후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25일 오전 0시를 기해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했다. 박 후보는 20대 남성 직원과 함께 매대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다.

박 후보가 “서울시에서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할 생각”이라고 하자 청년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취재진에게 “코로나로 제일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다”며 “생활 시장, 민생 시장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코로나19 방역으로 선거운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지하철 1~2호선 열차를 관리하는 군자차량사업소를 찾아 방역 작업에 손을 보며며 구슬땀을 흘렸다. 방역복을 입은 오 후보는 늦은 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하철 객차 안으로 들어서 수건으로 손잡이와 좌석 등을 닦았다.

오 후보는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이라며 “3~4량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온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새벽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해 다시 뛰는 서울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김태연 대표 대행과 함께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선대위 ‘YC-노믹스’ 선포식을 하고 부산시 경제정책 공약 비전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광복사거리 출근길 인사와 부천시장 유세에 이어 부산시의회를 방문, 미래 비전 공약집을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與 “정보위서 박형준 불법사찰 검증”

29일 전체회의 소집...국민의힘 “선거공작” 반발

민주당이 이명박(MB) 정권 청와대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내주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선거공작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25일 통화에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정보위 전체회의 때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 부실해 2주 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조태웅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일주일 전에 특정 후보를 겨냥해 정보위를 열어 선거공작을 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국가안보기관까지 동원한 초

법적 선거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정원 60년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선거 후 정보위를 열자는 우리 당의 제안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지속적인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자당의 후보가 관련이 없다면 떳떳하게 정보위를 열어서 검증해야지, 감춰서 선거에 당선되고 보자는 의도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선거 뒤에 숨지 말고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안철수 대선행보, 정권교체 걸림돌”

“윤석열, 5~6월엔 태도 명확할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행보가 정권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대표가 대선에 나갈 것으로 보는가”는 진행자의 질문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앞으로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또 한 번 해보겠다는 뉘앙스가 비쳤다”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또 장애요인이 될 것 같으면 결정적으로 정권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 지

을 할 수 있겠어요”라고 되물었다. 진행자가 “안 대표가 정권교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다시 묻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내가 (당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4월 8일을 기해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여러 차례 경험해봤는데 별로 즐겁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선 “늦어도 5~6월이 되면 태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대표 선거운동 중단

오는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4·7 재보선까지 당 대표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24일 공동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와 4·7 재보선 선거 지원과 관련해 긴급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며 “4월 7일까지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부산 등 지역의 재보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5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인증의무’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25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약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수의 이용자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언론사에게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는 실명미인증 게시물의 미인증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게시자와 이용자에게 허위사실의 게시, 공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거 유세 과정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 아냐”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약 2주 뒤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은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약속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박병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싼” “땡”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확정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가 4억원 → 7,500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7-470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판사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